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민성동양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6월 2일(월) 제 3106호

순창, 사전투표율 69.35% 전국 시군구중 1위

전북 사전투표율 53% 전국2위
내란종식·정권교체 열망으로
‘湖高嶺低’ 현상 드러나
민주당, 내란청산 촉구 반영

D-1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전남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본보 단독 5월 29일자, 30일자 1면 보도〉

이와함께 전국 시·도별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아성인 호남은 높고, 국민의힘의 절대지지 지역인 영남에서 낮게 나타나는 등 ‘호고영저(湖高嶺低)’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사전투표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유권자 151만 908명 중 80만 975명이 투표권을 행사, 과반이 넘는 53.01%의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의 36.93%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전북은 지난 20대 48.63%보다 4.38%가 높았다.

[▽전북 시군구별 21~20대 대선 사전투표율]

시군구	제21대	제20대	율감
합계	53.01	48.63	4.38
전주시완산구	48.84	45.37	3.47
전주시덕진구	48.78	45.58	3.2
군산시	49.89	45.37	4.52
익산시	52.05	47.14	4.91
정읍시	57.03	52.28	4.75
남원시	61.28	56.54	4.74
김제시	58.80	52.20	6.6
완주군	54.73	50.68	4.05
진안군	63.12	59.68	3.46
무주군	59.01	54.02	4.99
장수군	62.08	58.88	3.2
임실군	62.09	58.52	3.57
순창군	69.35	57.19	12.16
고창군	60.69	53.47	7.22
부안군	59.01	54.97	4.04

6.3 대선투표 인증샷 용지 오려가세요! ... 12면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56.50%에 두 번째이다. 또 광주는 전북에 이은 3위로 52.12%를 기록하는 등 호남 3개 시·도만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전남만이 유일하게 51.45%의 사전투표율로 과반을 넘었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은 영남지역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영남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수준이었고, 경북은 평균보다 크게 높은 41.02%를 보였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25.63%로 호남지역 투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은 30.37%, 울산은 32.01%, 경북은 31.52%, 경남은 31.71%로 영남권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되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호남은 높고, 영남은 낮은 ‘호고영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계엄으로 시작된 이번 대선에서 호남은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영남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투표를 요구해왔으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도지사와 기초단체들도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관망해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은 사전투표 부정론을 주장하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 및 지도부와 입장차를 보이면서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순창군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전북자치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지난 20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표 참조]**

특히 순창군의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 57.19%보다 무려 12.16%포인트가 높았다.

순창군은 2위를 기록한 신안군과 2

일차부터 1% 내외의 경쟁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3.74%차이로 사전투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군은 공공기관 청사 외벽을 비롯해 읍면 주요 도로와 게시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에도 설치하며 군민과 도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무엇보다 최영일 군수가 ‘투표 참여’홍보판을 들고 장날 전통시장과 행사장 등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장소마다 선거일

과 사전투표 일정, 투표소 정보 등을 설명하며 일일이 대면 홍보에 나선 것도 이번 사전투표율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15개 (전주2개)시·군·구 중 투표율이 60%를 넘는 시·군은 남원시와 진안·장수·임실·고창군 등 모두 6개 시·군이었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전주 완산·덕진구와 군산·익산시를 제외하고 모두 50%를 넘었다.

/서울=김영목 기자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대병원 전공의 복귀 ‘진료 정상화’

전공의 39명 복귀 수련 재개
필수진료과 공백 해소 기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최근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총 39명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은 6월 1일자로 수련을 재개하고 진료 현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는 전공의 전원이 복귀함에 따라 해당 진료과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도 진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내과·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주요과의 전공의가 복귀했다.

복귀 결과는 전북대병원이 전공의의 사직 이후에도 상시 소통하면서 신뢰 구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근무환경 개선 및 수련교육 내실화 등에서 전북대병원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도 풀이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서 현대가(家) 터비

지난달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박진섭 선수의 역전골 전 이승우 선수가 오버헤드킥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생중계영상 캡처>

전북현대,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선두 질주

창단 최초 전주경기 전석 매진
전주시, 1994 버스 15대 운행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가 지난 31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HD와의 시즌 두 번째 현대가터비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하며 13연속 무패행진과 함께 선두를 질주했다.

전북현대는 이날 하나은행 K리그1 2025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산현대

를 맞아 3-1 역전승을 거두며 홈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특히 13경기 연속 무패행진(9승 4무 2패) 고지에 오르며 1위를 지켰다.

전북현대는 울산 이청용에 선재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서 전반 25분 송민규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북은 후반 추가시간 이영재의 코너킥 이후 세컨볼을 김영빈이 헤더로 다

시 밀어넣었고, 이승우의 오버헤드킥이 조현우 골키퍼에 맞고 나오자 박진섭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또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 역습 찬스에서 이승우의 패스를 티아고가 3번째 썬기골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경기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매진을 기록했다. 이에 전주시는 시민과 축구팬의 관람 편의를 위해 1994 특별노선을 증편

운행했다.

이는 최근 전북현대모터스FC가 파죽지세로 K리그 1위를 질주하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적인 흥행을 달성함에 따라 주말 저녁 경기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

특별노선에는 수소버스 14대와 전기 마을버스 1대 등 총 15대의 친환경 차량이 투입됐고, 평소와 달리 경기시작 3시간 30분 전부터 8~10분 간격으로 평화동 중점에서 경기장으로 출발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오후 9시부터 만차시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道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신규 기업 56곳 선정

**총185개사에 104여억 지원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 5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과 역량에 따라 △돌출기업 17개사 △도약기업 15개사 △신도기업 15개사 △혁신기업 4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을 포함해 185개사에 총 104억 5,0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혁신기업’ 부문이 신설됐다.

3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수와 수출을 모두 실현한 유망 기업 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동일 기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역행기업의 재선정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도입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재정 지



/김영태 기자

안호영 의원, 지역 청년들과 사전투표 참여

“내란세력 심판하고, 청년이 꿈꾸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달 29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기회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자 희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투표에 참여한 청년 송형섭 씨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실적인 청년 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전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20일까지 디지털 혁신
실증기업 총 4개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재)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는 도내 이차전지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한 ‘디지털 혁신 실증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과제 일환이다.

특히 전북 미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시범 적용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해 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올해 실증사업은 총 4개사(신규 2, 고도화 2)를 선정해 AI 솔루션은 산업 현장에 제공하고, 성과 검증은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증을 통해 생산 공정의 품질 향상, 소재·부품 탐색의 효율화, 물류관리 최적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전북 이차전지산업 디지털혁신 플랫폼 누리집(https://jbdiv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선정된 기업은 실증기관인 지음소프트와 함께 실증 과제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북 이차전지 산업이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과 상용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안전복지 타이머 콕’ 무료 보급 확대

**6월~11월까지 취약계층
3,947가구 대상 무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고령자(55세 이상)·장애인·치매환자 등 가스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3,947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밸브 자동 차단 장치인 ‘타이머 콕’을 무료 보급한다.

이 장치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이후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깜빡 잊거나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와 시군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을 맡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제품 선정, 시공, 사후관리까지 기술적 부분을 총괄하는 ‘행정-전문기관 협업형 모델’로 운영된다.

도는 지난 4월 도-시군 가스담당 공

무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가 함께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월 조달청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제품 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까지 완료했다.

또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 외에도 LPG 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도는 각 사업을 통해 가스누출 및 화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광·MICE 발전 자문회의

주요 개발 현장·관광자원 답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언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MICE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광래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새만금의 주요 개발 현장과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현장과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했으며, 고군산군도를 찾아 새만금 관광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새만금 입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래저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방향성과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 신속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관광 잠재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반영해 새만금이 관광·MICE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에 감사”

최종 사전투표율 53.01%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북자치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참여와 열정에 깊은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북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53.01%로, 전국 평균 34.74%를 훌쩍 넘고 전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순창군은 무려 69.35%의 투표율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하며 도민의 뜨거운 주권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불통 국민을 의

전북자치경찰청 ‘정책자문협의회’ 출범

민관 협력 치안 문제 해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전북자치경찰 정책자문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열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자문협의회는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디지털 성범죄, 외국인 문제 등 치안 사각지대와 밀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주차 서비스 사업 △청소년 학교폭력 해소 대책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방안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3대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일선 경찰관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과 자문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자문협의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현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는 3가지 실천 방법

1.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

2. 인터넷 사용량 줄이기

-이메일삭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3. 친환경 제품이나 기업이용하기

현명한 소비의 선택으로
환경보호에 동참

전북도 3개 농생명산업지구 추진 가속화

진안·남원·고창 특화지구 환경부 영향평가 최종 통과 혁신성장 거점지역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가 최종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인다.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60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ha)' 등 총 83ha 규모에 대한 환경부 및 전북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지구지정 고시 추진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초안 작성,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분안 작성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

는 행정절차로 추진됐다. 도는 지정 고시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까지 29개 세부사업에 총 2,155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첨단 농업기술의 실증·보급 거점으로, 진안 홍삼한방 산업지구는 국내 유일의 홍삼 특구 기반을 살린 기능성 원료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고창 김치특화 산업지구는 생산·가공·유통·체험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산업지구를 국가 단위 농생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지역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지구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속도를 붙인다.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조감도. <사진=전북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도내 시군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할

국민연금, 美 금리 불안에도 1분기 수익 10조 돌파

3월 말 기금적립금 1,227조 0.87% 수익률 기금 증가세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10조 원 이상 운용 수익을 내며 1,220조 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환)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3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이 1,227조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금은 10조 6,107억 원, 수익률 0.87%(잠정·금액가중수익률)를 각각 기록했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 4.97%, 국내채권 2.03%, 대체투자 1.32%, 해외채권 1.05%, 해외주식 1.56%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글로벌 불안에도 저평가된 주가 매력과 양호한 수급 여건, 실적 기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내며 기금 전체 수익률 방어에 기여했다.

해외주식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하며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국내 및 해외채권의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채권은 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가 더 낮아졌고, 그 덕분에 채권 투자 수익률은 양호했다.

대체투자의 경우 수익률에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수익을 비롯해 원·달러 환율이 변동되면서 생긴 외화 차이가 손익에 반영됐다. 김태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글로벌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 막걸리'로 일본 관광객 잡는다

한국관광공사 공모 선정 '지역특화음식 캠페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올해 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5 지역특화음식 캠페인(고도치구루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지역의 고유한 맛과 개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주의 캠페인 테마는 지역 대표 음식인 '전주 막걸리'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특별히 구성된 막걸리 정식 1인상(3만 원)을 전통적인 분위기

의 전주 식당에서 즐길 수 있다. 총 11개 업체*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다. *옛촌막걸리-전주한옥마을점, 서신옛촌(본점), 옛촌(별관), 옛촌막걸리 삼전점, 전주막걸리, 북막걸리, 물레방아 막걸리, 용진집막걸리, 국주마을, 신여인천하, 남도집 또한, 캠페인 참가자들에게는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가뭇막걸리 키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이는 전주의 전통주 문화를 단순한 시음에서 나아가 일상 속 체험으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만의 미식 문화인 전주막걸리 한 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지역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캠페인의 일본 현지 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5 지역특화음식캠페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일본 관광객 대상으로 캠페인을 연다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광상품화를 위한 팸투어를 오는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전북은행, 어린이 'Green 환경그림' 공모

총 100명에 전북은행장상 수상작 전북은행본사 1층 전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RCY본부(회장 이선홍)와 함께 '2025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그린(Green) 환경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조성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과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어 가는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도내 소재 초등학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도화지에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을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로 전북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동봉하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

는 행정절차로 추진됐다. 도는 지정 고시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까지 29개 세부사업에 총 2,155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첨단 농업기술의 실증·보급 거점으로, 진안 홍삼한방 산업지구는 국내 유일의 홍삼 특구 기반을 살린 기능성 원료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고창 김치특화 산업지구는 생산·가공·유통·체험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산업지구를 국가 단위 농생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지역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지구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웹툰작가 교육생 10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 웹툰작가 양성 사업' 참여 예비 및 기성 웹툰작가 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지역 내 지역 웹툰 창작 생태계 활성화 위한 것으로 '웹툰 창작자 발굴·맞춤형 멘토링·전문교육' 등 창작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속이 목적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예비 또는 기성 웹툰 작가로, 로맨스, 판타지, 액션 등 장르 제한 없이 웹툰 창작을 준비 중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7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최대 1,05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성과전시회를 통해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원고료도 추가 지원된다. 총 1인당 최대 1,140만 원의 창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웹툰 분야 현업 작가와 PD 등의 전문 멘토링(총 72시간)과 함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웹툰 연계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 15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전주단오’ 친환경 축제로 밤낮 달렸다

덕진공원 일원에서 행사 개최
국가무형유산등재추진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절기 행사인 ‘2025 전주단오’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25 전주단오’ 행사가 전주단오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성대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이해 열린 2025 전주단오는 행사 첫날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와 길놀이로 막을 열었다. 또한 단오장사 씨름대회와 창포 머리감기 등 시민과 관광객이 단오의 전통



2025 전주단오 행사장에서 아이들이 단오물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세시풍속을 보고 체험하며 단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창포머리감기와 더불어 창포 물놀이마당에서 운영된 △물총켄링 △물총사격 △물풍선 농구 △창포타구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물맞이하던 옛 단오의 풍습을 함께 즐기기도 했다. 올해 전주단오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였다. 주간에는 지짐이 및 먹거리부스가 운영됐으며, 야간에는 야식 메뉴가 가득한 푸드트럭이 운영됐다. 또한 다화용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검무공연 △비보잉서커스 △탈바꿈놀이 △버스킹공연 △LED미디어퍼포먼스 △불꽃 퍼포먼스 △전주시립국악단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공연들이 준비돼 단오의 낮과 밤을 열정적으로 물들였다.

/김영태 기자



전북 4개 대학 연합 ‘취업캠프’ 운영

군산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

도내 4개 대학이 연합으로 지난달 30일 이차전지부트캠프인력양성사업단에 참여 중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대학 연합 캠프’를 진행,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연합 캠프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와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연합으로, 참여 학생들이 취업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2025년 채용트렌드 이해 △ NCS/직무적성검사 △ 입사지원서·면접 등 맞춤형 컨설

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역량강화와 다양한 면접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군산대학교 오연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에 대한 벽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을 예정이다”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한전 전력연구원, 친환경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잉크젯프린팅’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전북대학교 강재욱 교수(유연인쇄전자공학과) 연구팀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도형 박사팀이 친환경 용매를 활용한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결합한 차세대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2025년 예정)와 공정화학 분야 상위 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전북대학교 강재욱 교수

(2024년 8월)에 연이어 게재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해 용매 대신 바



한전 전력연구원 김도형 박사

이상의 대면적에 두께 편차를 3% 이하의 박막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공정에

가능하며, 최대 셀 효율 17.78%, 미니 모듈 효율 13.14%를 달성했다. 장기 안정성에서도 2개월 반 이상 성능의 95%를 유지하는 우수한 내환경 특성을 입증했다. 강재욱 교수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친환경적이며 저비용으로 대면적 제조가 가능해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기술로 각광받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잉크젯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협력으로 실용화 가능성을 한단계 높인 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바이오 분야 미래인재 양성 힘 모은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등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바이오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은 두 기관과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 및 바이오 분야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목적이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예산 지원,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운영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바이오 3핵 주제 기반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의 기획, 운영, 인프라 조성을 맡는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대상 프로그램 연계, 예산 지원, 교육과정과의 연계 협조, 참여 학생 모집 등을 담당한다. 서 교육감은 “전북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및 바이오 분야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북형 미래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속 선정

전북 유일 18년 연속 선정
공정·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 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대학교는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1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서 책 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덕진수영장, 6월부터 아쿠아로빅 강습 정규반 개설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덕진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습 정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덕진수영장은 지난 4월 시범적으로 운영한 아쿠아로빅 강습을 6월부터 정규 강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쿠아로빅 정규 강습은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50분간 진행된다. 수영장 수심이 140cm인 관계로 키가 145cm 이상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강

습을 받을 수 있다.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과 저항을 이용한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이 적고 운동 효과가 큰 수중운동이다. 아쿠아로빅 정규 강습반 개설로 시민성원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 시간에 수영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시설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질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정읍시, 여름철 축산재해 ‘철통 방어’…10월까지 가동

정읍시가 올 여름 폭염, 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2025년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아 폭염이나 열대야 등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축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이나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즉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예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만약 축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군산 근대문화유산 도보여행’

군산시는 ‘2025년 국가유산주간’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군산 근대 문화유산 도보여행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국가유산주간’은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지역유산축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1회 운영되며, ‘국가유산청 생생 국가유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을 도보로 탐방하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시 역시 해설 프로그램, 지도 그리기 체험, 공연 등도 마련해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돌상·백일상 대여 확충

정읍시가 소중한 아기의 첫 생일과 백일을 특별하게 기념하고자 하는 출산 가정을 위해 돌·백일상 대여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확충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장난감까지 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돌·백일상 물품 대여 서비스는 아기의 취향과 부모의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전통 상차림과 화사한 꽃장식 상차림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서비스는 정읍시장난감대여점(정읍시 문학길 12)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난감대여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여 예약은 매월 1일, 시청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해당 월에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비는 연간 2만원(시설의 경우 5만원)이지만,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은 이용료가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통합 돌봄 민관 협력 기구 ‘출범’

7개 부서기관 첫 회의 익산형 통합 돌봄 사업 착수

익산시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익산형 통합 돌봄 민·관 추진단(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통합 돌봄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부서별 역할·실행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무 중심의 민·관 공조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익산시 부시장이 단장을, 복지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경로장애인 △북북지정채과 △보건의원과 △보건의사업과 △주책과 등 시 관계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익산 라이즈(RISE)사업 추진단 등 총 7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익산형 통합 돌봄 민관 추진단(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익산시>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제정,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단위 돌봄 통합 정책의 근거법이다. 의료·요양·복

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 돌봄 전담조직(계 단위)’을 신설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 선정

산단 외국인원룸촌 CCTV 설치 도비 1억2000만 원 확보

군산시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는 도내 범죄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7개 시군이 응모한 가운데 군산시는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 내 방범 시설 확충을 통한 범죄 발생 심리 억제 및 안전한 생활환경 거주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공모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지능형 AI 융복합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얼굴인식과 이상 음원 탐지가 가능한 스마트폴 4대, 생활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업하여 외국인 주 거주(운집) 지역인

오식도동 원룸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범죄분석을 통해 9개소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총사업비는 4억 원(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및 거주 시민의 사건·사고, 범죄 발생 시 이동 동선을 쉽게 파악하고 향후 추가적 발생 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실시간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중앙동 구도심에 안전 인프라 확충

CCTV 확충·빈집 철거 등

익산시가 쇠퇴한 구도심의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충에 나선다.

익산시는 중앙동 구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형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첫발을 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중앙동은 한때 익산의

상업·행정 중심지였으나, 상권 이동과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범죄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생활 안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익산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통계와 현장 치안 정보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지역을 우선 정비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쇠퇴 지역의 범죄 예방력 회복과 생활 환경 재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선제적 행정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 △고화질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설치 △로고 프로젝트 설

치 △노후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골목길 환경 개선 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조성되는 유휴 공간은 주차장 또는 주민 소모 공간 등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도심 내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통합형 사업 모델로서 주목된다.

빈집 철거 후 조성되는 주차장은 최근 구도심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베이커리형 카페 ‘금종제과’와 ‘청년몰’ 방문객은 물론, 인근 중앙·매일·서동시장 이용객들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쾌적한 정읍천 만들자”

현장 점검 주요 시설 환경개선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정읍천 곳곳을 점검한 가운데, 미로분수와 맨발걷기 체험길 등 주요 시설의 환경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정읍천 일대를 직접 걸으며 현장 중심의 ‘현장속으로’ 행보를 이어갔다.

미로분수 인근의 꽃잔디는 생육 부진을 이유로 생육이 우수한 식물로 교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로분수에서 샘골다리 구간에도 꽃잔디를 밀도 높게 심어 경관 개선을 꾀하고, 미로분수 벤치 아래 식재된 꽃잔디는 주변으로 이식해 야자매트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또 “샘골다리와 연지교 사이의 씨름장 부지는 잔디를 심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라”고 주



문했다. 맨발걷기 체험길의 평탄화 작업과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둔치 화단의 시각적인 정돈감을 높이기 위해 화단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경관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하모교에서 정읍천교까지 범면 구간과 인공섬 내의 수목을 제거한 뒤, 그 공간에 금계국 식재를 추진해 생태적 경관을 한층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소동 인근 하천 준설 작업을 통해 경관 개선과 유수 흐름 향상을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5일,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 박람회

GSCO, 청년일자리해법 찾는다

군산시가 매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GSCO”)에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는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오는 5일 10시부터 17시까지 열리는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는 청년 인구 유출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군산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박람회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반기업관 △이차전지 기업관 △공공·금융기업관 △취업지원관 △취업컨설팅관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북 콘서트, 기업 현장 면접, 참가 기관 채용설명회도 함께 열린다.

또한 참가기업과 구직자 사전매칭으로 1:1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스도 마련했다. 특별 초빙된 서동주 강사의 북 콘서트도 눈여겨보면 좋다.



올해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대두되는 만큼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인공지능(AI) 실무강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시는 이번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참가자 목표 1,3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 누리집(<https://www.saemangeumjob.kr/>) 또는 QR부호(코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우수 지자체로 ‘주목’

보건복지부 관계자 익산 방문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을 비롯한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들이 익산을 찾아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성과를 살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는 익산시의 사업 추진 사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수혜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재가 의료급여가 미친 영향을 직접 살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52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한 가사·간병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밑반찬 제공 △재래시장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물품 지원 등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의료비 절감률 72%, 재가 생활 유지율 87%, 대상자 만족도 95%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슈퍼비전 기관’으로 지정돼, 다른 지자체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덕천면 ‘깨끗한 물·건강한 땅’ 만든다

정읍시가 덕천면 일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본격화한다.

올해 1억 4000만원을 들여 배수물교 설치와 완효성 비료 공급 등을 지원, 깨끗한 하천과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초기 강우 시 논밭의 흙탕물과 오염물질 유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수물교’ 설치를 지원하고, 양분 유실을 줄여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

고 질소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완효성비료’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덕천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토양 유실 저감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덕천면 상하리, 하하리, 도계리, 우덕리이며 총 30가구의 농업인이 참여한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초록우산, ‘군산시와 함께돌봄’업무협약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군산시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군산시와 함께돌봄’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경제적 지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업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기에 발굴, 세심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군산시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2023년 제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 정책 집행에 돌입하게 됐다.

협약을 마친 양 기관은 앞으로 △군산시 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발굴 및 상호 의료 △경제적·프로그램 지원 협력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프로젝트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며, 군산시 내 저소득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억 원 규모의 복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지원은 초록우산 재단기금과 지역 사회 모금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순창 북서부, 지역균형발전 ‘신호탄’

총 170억 규모 사업 대상지 농촌협약공간정비이단 선정 구립면 농촌혁신 본격화

순창군 구립면이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60억 원)과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110억 원) 등 총 두 건의 대형 사업을 통해 구립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은 순창군 북서부,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구립면의 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은 이를 통해 구립면을 명실상부한 농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확정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 규모로



순창군 구립면이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와 ‘농촌공간정비’ 등 두 건의 대형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순창군>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구립면 입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입산물인 두릅, 복분자 등의 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총 60억 원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옛 구립양조장 부지를 매입해 쉼터와 주차장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유빨래방·노인 건강관리실·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신규 지정식 개최

연중무휴 야간약국 운영 지역 약품 접근성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29일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새롭게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식을 개최하고 남원백제약국(남원시 용성로 102)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식은 오늘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심야약국’에 앞서, 지정서와 현판을 공식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남원시 보건소장이 신규 지정 약국 대표에게 직접 지정서와 현

판을 전달하며 공공의료체계에서 심야약국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게 될 편의성 제고에 대해 뜻을 모았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업이다. 특히 인구가 적고 약국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365일 심야 운영이 쉽지 않아 전국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남원백제약국’(남원시 용성로 102)은 기존에도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가 연

중무휴(365일)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약품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금일부터는 매일 밤 11시까지 연중무휴(365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야간 시간대의 처방약 조제는 물론 일반의약품 구매 및 약물 상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오늘 개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지역 야간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소아환자의 야간 진료 후 즉시 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윈스톱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올해 2회 추경예산 1,027억 원 편성

기정액 대비 11% 증액 편성 수소산업·교육특구 등 중점

완주군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027억 원(11.02%) 증가한 1조 34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027억 원(11.02%)이 증가한 규모로 ‘수소도시 완주’,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

시 완주’ 실현을 위해, 수소관련 사업과 기업유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와 교육, 문화관광,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기금전출금 202억 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40억 원 △수소차 보급 15억 원 △교육발

전특구 시범사업 20억 6,000만 원 △약취배출시설 매입 27억 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45억 원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 36억 원 △순수업체유가보조 20억 원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10억 원 △신규 전월마을 조성 9억 원 △완주사랑상품권 7억 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 7억 원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 2억 원 규모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제1회 국악의 날’ 기념 특별 공연 선배

남원 명인·명창 한자리에 민속악·판소리·무용 어우러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5일과 7일 양일간 관한루원 영주각 특설무대 및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제1회 국악의 날’ 지정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매년 6월 5일)인 ‘제1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국악의 본고장 남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 있는 무대다.

5일 저녁 7시 30분에는 관한루원 영주각 특설무대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의 전통 민속악 공연 ‘興民樂(여민락)’이 펼쳐진다.

흥겨운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잔칫날 흥을 돋운무 무용 ‘예기무’, 구상전 노동요 ‘농부가’ 등 무대로 시작되고, 여기에 남원시립국악단의 악장을 맡고 있는 임현빈 명창이 심경가 중 가장 국



남원시는 오는 5일과 7일 ‘제1회 국악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공연을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 개최한다. <사진=남원시>

적인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부른다. 그리고 민속악 즉흥 기악중주 ‘월하야흥’, 남성춤의 배미 ‘한량무’에 이어 관객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으로 마무리된다.

7일 오후 4시에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남원 명인·명창들의 국악공연

이 예정돼 있다. 윤진철, 이난초, 가야금 병창 강정열 등 남원출신 명인·명창들이 출연해 명품 국악공연을 펼친다.시는 관한루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 대상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 중이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청소년, 모의투표로 민주주의 체험

대선 맞아 사전투표·본투표 개표과정까지 자발적 참여

완주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2007년 6월 4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모의투표는 2025년 청소년 모의투표 전북운동본부(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와 함께 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청소년 모의투표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QR코드를 통해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한 수 있다.

지난 29일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으며, 30일에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3일 본 투표일에는 투표시간이 끝나는 오후 8시부터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모의투표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첫 실시 이후 완주군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당시 모의투표를 경험한 청소년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번에도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홍보 및 운영 전반에 참여한 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AI 돌봄로봇’ 치매어르신 가정 보급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기관 선정 경증 치매 어르신 25가정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조달청 주관 2025년 혁신 제품 시범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경증 치매 어르신 25명에게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을 6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이 제품을 직접 구매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며, 6개월간의 시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소유권이 조달청에서 시범 기관으로 이전되어 총 8,25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은 식사와 복용개인 일정 알림과 말벗 기능, 모바일 앱을 통한 보호자 연계(화상통화·문자), 인지훈련 콘텐츠(게임, 체조) 제공, 응급상황 관제 서비스, 유튜브 연계 미디어(음악, 영상 등) 지원 등 치매 어르신의 일상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을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흑미 쥘’ 수박 출하 “달콤 아삭”

한내돌영농법인 회원 50명 소비자 큰 인기 매출 기대

완주군 한내돌 영농법인(대표 이득로)이 조생흑미 수박인 ‘흑미 쥘’ 수박을 본격 출하했다.

2019년 설립된 한내돌 영농법인은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400여 동의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이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출하를 앞두고 삼례해제전리 일원에서 재배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식행사를 갖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 높은 당도 등 우수한 품질에 대해 큰 반응을 얻었다.

조생흑미 수박은 저온기 재배가 용이한 품종으로 일반수박과 비교했을 때 껍질이 얇고 당도가 일반 수박에 비해 1.5~2Brix 높다. 또한 육질이 치밀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남원시 농축협, ‘고향사랑’ 상호기부

상생협력 강화 다짐

지난 29일 순창군청에서 순창군농·축협은 남원시에, 남원시 농·축협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총 2,750만원을 교차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순창 및 남원 관내 6개 농·축협 조합장,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 오영석 남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접 시군간 상생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번 상호기부는 순창군의 동계(조합장 양준섭)·구립(조합장 김순용)·서순창(조합장 설득환)농협, 순정축협(조합장 남상국)과 남원시의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 임직원 270여 명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남원시에 1,320만원, 순창군에 1,430만원을 기탁했다.

조합장들은 “이번 상호기부가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전하고, 순창군·남원시 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원,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대표 정정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사회적경제기업에 인프라 지원, 경영지원 컨설팅 등의 맞춤형 사업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스타기업 선정업체에는 3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1차년도에는 인프라 지원, 경영진단 컨설팅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으로 각각 1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은 이번 스타기업 육성 기간동안 연매출 2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은 100% 국산 농산물을 엄선해 저온압착 프리미엄 참기름, 들기름과 들깨를 주원료로 한 들기름 막국수와 들깨 칼국수, 들깨삼계탕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에 창립해 2021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으며, 꾸준한 판로 확장으로 연간 국산 참깨와 들깨 100톤을 수매해 농업을 지키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품 기부와 장학금 후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리산처럼은 흡소핀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기반을 확충하고, 저온시설을 규모화해 원물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담양, 고향사랑 상호기부 양 지자체 협력 공고히

순창군과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지역 간 우정과 상생의 의지를 나누며 의미 있는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30일 최영일 순창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가 양 지자체를 대표해 서로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담양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화답해 정철원 담양군수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두 지자체 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양 군은 그동안 농촌융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등 다양한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구례·곡성·순창·담양 4개 군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서 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100세 잔치’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대한노인회 순창지회장기 제2회 파크골프 대회 성료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30일 순창군 유등면 선진강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 선수와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파크골프는 간단한 장비와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부지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다. 특히 순창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린 유등면 선진강파크골프장은 순창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아울러, 군은 현재 쌓이면 금정체육공원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 중으로, 군은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축산농가 사전 안전점검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자연 재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관내 축산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15~10.15.)에 따라 추진되며, 군 농업축산과에서 관내 재난에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재난 유형별로 나누어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폭염 대비를 위해 축사 내 냉방 및 환기시설, 급수 시스템, 지붕 차열 시설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정전 시 대처방안 및 비상 발전기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협력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폭염 예방제, 축사 냉방시설 지원 및 가축재해보험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강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가축과 농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무풍초·병설유치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

무주군이 무풍초등학교와 무풍초병설유치원을 ‘2025년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조성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다.

이들 학교는 안심학교 선정을 계기로 전 교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알레르기 환아를 파악하고 전복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교사와 환아, 학부모, 일반 학생 대상 교육 및 상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부 보습제 지원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환아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위험을 줄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라며 “조기 발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관리와 치료지원이 아동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농지대장 작성·발급·정비 지원

장수군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교육은 읍·면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업무 보조원을 대상으로 장수군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했으며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0㎡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중점정비 대상 농지 13,127건 중 97.4%인 12,793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록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48,227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농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5,567억 규모 추경안 편성

본예산 대비 495억 증가 “민생 경제·생활 안정 지역발전 최우선”

임실군이 천만관광 도약과 군민안전·정주여건·농업경쟁력·복지행정 등 전 분야에 방점을 둔 5,56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5,567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대비 495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66억원 증가한 5,2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가한 31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우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73.7억원 △풍수해 생활권 중

합정비사업 37억원 △수해피해 복구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15.4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1억원 등 주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양지구 앞들 개발사업 38억원 △귀농귀촌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4.3억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천만관광 임실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12.8억원 △임실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8억원 △자라섬연계 관광개발사업 8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봉황인재학당 교육시설 개선사업 8억원 △임실 교육발

전특구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 2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효심행정의 일환으로 △어르신 이마용료 및 목욕비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등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추경안에 담았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실군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와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한 단계 높은 지역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의 화와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관광객 안전 총력

무주군, 안전관리 종합계획 5일 행사장 현장 점검

무주군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읍 예채문화관 일대 및 덕유산국립공원 대접회장 등지에서 개최 예정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은 영화제 기간 관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요원(112명)을 주요 행사장 등 총 15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주력한다.

주요 행사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는 6월 5일에는 집중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이날 점검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소방서와 무주경찰서 그리고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동참



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해만 3만 5천여 명이 찾아주셨고 올해도 역시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예상한다”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안전하게 즐기고 모두가 만족하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만

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영화 상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작년 매출액 3억 이하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

진안군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날 19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진안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진안군 농촌활력 과 민생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진안군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 856개소에 상품권 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희망더드림 특

례보증 이차보전, 이 밖에도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등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재열 진안군 농촌활력과장은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투표 독려 캠페인 동참

“나라 미래 결정하는 선거 군민 모두 참여해 주시길”

전춘성 진안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지난날 30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독려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날 12일 충남 아산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참여 주자를 지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전 군수는 “투표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춘성 군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우리나라



를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뜻깊은 선거에 군민 모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마을방송, LED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촌치유관광 콘텐츠사업 농가 모집

30일까지 신청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무주군이 농촌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운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장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절차와 양식을 확인한 뒤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장에는 △사업

장 전용 홍보영상 제작과 함께 △가농장 특성을 살린 치유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플랫폼 연계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하현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장은 “이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촌의 일상 속 치유 요소를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모델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소방서,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투·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오후 6시부터 오는 4일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선거 기간 중 다수의 유권자들이 방문하는 투·개표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임실 관내 28개 투·개표소에 대한 사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소

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대피시설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화재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했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138명, 의용소방대원 512명, 소방차량 24대가 동원돼, 선거 기간 동안 투·개표소를 중심으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3일 개표일에는 임실군민체육회관 개표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마쳤다.

김상곤 서장은 “투·개표소는 많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인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 군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고원물, 6월 사은품 이벤트…특산물 소비 촉진

20만원 이상 구매 홍삼 등 증정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물’에서 6월 동안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고원물에서 판매되는 신선 농산물, 홍삼제품 등 전 제품이 대상이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은 (사)진안군홍삼한방플러스

터사업단의 홍삼제품이며, 7월 중순에 대상 고객에게 연락 후 발송할 예정이다.

진안고원물은 6월 행사를 시작으로 달마다 다양한 행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안고원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알림받기 설정을 하면 행사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안고원물의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진안군 대표 명품홍삼 제품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꿈 더하기’ 선정자 10명 지원증서 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는 ‘2025년 개인별 맞춤형 특화사업 꿈 더하기’ 선정자 지원증서 수여식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꿈 더하기’ 사업은 최후식 장수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중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1:1 맞춤형 강습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12명의 청소년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6명이 선발됐고, 전년도부터 활동을 이어온 연속 지원 대상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학생이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영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향후 약 6개월간 전문 강사와의 1:1 맞춤 교육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후식 군수는 “‘꿈 더하기’ 사업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장수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남원시가족센터는 지난달 24일, 다문화가족 33명을 대상으로 목포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가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 참여 가정을 우선 모집하여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목포자연사박물관, 해상케이블카 체험, 그리고 스카이워크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들이 함께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산불 때 '천년송' 지켜낸 남원 와운마을에 도지사 표창

비상소화장치 가동 진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달 30일 도청 3층 소방본부장실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초기 대응에 기여한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마을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단체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7분경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와운마을 인근 산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을 인정해 수여한 것이다.

당시 화재는 강한 바람 속에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와 소화기, 양동이, 삽 등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잡풀 약 40㎡ 소실에 그쳤으며, 인근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천년송'도 안전하게 보호됐다.

신고자는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뒤 마을이장에게 상황을 전했고,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전파한 후 현장으로 달려가 비상소화장치를 가동했다.

주민들은 각자 준비된 소방 장비로 신속하게 대응해 마을 공동



체의 초기 대응 역량을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공동체 중심 화재 대

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태 기자



우석대, 국립임실호국원에서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

우석대학교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달 30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석대학교는 지난 2018년 국립임실호국원과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교직원과 재학생 등 60명이 참여해 결연 묘역 1588기의 묘비를 닦고 태극기를 꽂는 한편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최성민 기자

중앙축산농업회사법인, 익산에 나무심기 성금 5천만 원 기탁

녹색정원도시 조성 동참

익산시는 '중앙축산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김태일)'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축산농업회사법인은 현역에 위치한 유류 도축업 회사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태일 대표이사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부안군 로컬JOB센터,
고향사랑기부제 상조기부 기탁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와 부안군로컬JOB센터(센터장 최연근)가 함께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상조기부 기탁식을 지난달 27일 부안군청에서 열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로컬JOB센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의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고창=백종규 기자

윤석열 군산시 안전총괄과장, '대통령상' 수상



군산시는 윤석열 안전총괄과장이 최근 제32회 행정안전부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재난 대응관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윤 과장은 2024년 여름철 풍수해 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당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 명령하는 등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한 점을 인정 받았다.

그간 군산시는 여름철 폭우 대책뿐 아니라 겨울철 대설 대책에도 민관이 협력하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실제로 지난 겨울에 수 차례 폭설이 내렸음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

와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일상, 산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는 민선 8기 감임준 시장 부임 후 안전을 최우선 행정 목표로 정하고 조직 정비 및 직원우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조직의 재난 행정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시는 그간의 재난 관리 수준을 인정받아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등 다수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교육 교재 등재 및 모범사례 발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감임준 시장의 안전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 중 하나라고 파악된다.

시는 이번 개인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조직과 개인을 아우르는 안전 관리의 종합적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완주군에 마스크 기탁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최해봉)와 완주군지회(지회장 권용훈)가 지난달 30일 완주군청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만 5,000장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마

련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완주군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해봉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과 예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기계공고 학생들,
동아리 수상 상금 모아 장학금 기탁

익산시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동아리 폴리스, 미우꿈, 비즈쿨 3곳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5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동아리 학생들이 2024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과 학교 축제 운영 수익금을 모아 마련했다. 성금은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을 익산시장)에 기탁된 후 지역 청소년 학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다자녀 가족들을 위한
행복한 1박 2일 가족캠프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1박 2일 캠프를 열고, 가족 간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에서 '제17회 가족 행복캠프'를 개최한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명랑운동회 △별밤 가족 산책 △바람개비 열차 △자전거 체험을 비롯한 기존 인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 신문 만들기, 인생네컷 촬영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체험에도 참여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주방에서는 불 조심, 냄새조심

요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식용유에 불이 붙어 있을땐 뚜껑을 덮거나, K급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늘 썰는 냄새가 난다면 가스유출을 의심하기

가스유출이 의심스러울땐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한다

〈一事一言〉



여성혐오 조장한 이준석, 정치는 왜 하는가

김관춘
논설위원

대통령 후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가 입 밖에 내는 말,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품격을 상징한다. 특히 국민이 가족과 함께 지켜보는 대선 TV토론은 공적인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임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무대를 저급한 말장난과 여성혐오로 오염시킨 자가 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이라는 전국적 생중계의 무대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황금 시간대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내뿜었다. 그것도 '상대 후보 가족이 쓴 표현'이라는 암암한 핑계를 대며, 마치 정당한 검증인양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이며, 대선 토론을 방자한 언어적 폭력이다. 표현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입증하지 못한 그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한 막말이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망언이다.

이 후보의 주장은 더 기가 막히다.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심심한' 사과를 했지만, 동시에 "검증은 필요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발언의 파장이 정치적 계산 위에 놓여 있는 듯, 진정성 없는 변명과 억지 논리만 줄줄 흘러나왔다. 누

가 그런 말을 했던 간에, 대선 후보 본인이 그 말을 공론의 장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가 직접 내뿜은 발언이, 여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 은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된 천박한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것은 단순한 실화화 아니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선후보의 공적인 성희롱 사건이다. 정치적으로도 비웃을 것이라면 더욱 악질적이며, 실언이라면 그 무책임함이 더 끔찍하다. 누군가 인터넷에 떠돈 말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발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이 '남의 말이었다'며 혐오 발언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인권의 최자선을 무너뜨린 작태'라고 규탄한 것도 당연하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폭력적 표현을 꺼내 든 이준석 후보의 행위는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최대 축제를 모욕한 행위며, 공론장을 더럽히는 파괴 행위다. 그가 지난 정치 행보에서 보여준 끊임없는 남녀 갈라치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 자극적 발언으로 주목받기만을 노리는 경박한 행보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TV토론에서 공론과 논쟁,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없고, 이처럼 성희롱성 발언이 대놓고 나오고 제재 하나 없이 넘어가는 현실도 개탄스럽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고 형식에 쫓기다 보니 후보들의 자질 검증은커녕, 국민을 모욕하는 말조차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TV토론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일대일 토론 확대와 심층 정책 검증 중심으로 토론 문화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국민을 향한 존중도, 책임감도 없는 '가벼움' 그 자체. 불혹의 나이이면, 최소한의 품격과 자제력을 갖추어야 할 나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경박하고 천박한 언어로 대선 품격을 훼손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말장난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말꼬리를 잡고 교묘히 말을 비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과논커녕 "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다"는 식의 태도로 본질을 회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발악하듯, 위태롭고 처참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자신의 경박함이 가져온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하고, 대선후보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성찰 없는 언변과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장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며, 정치인이 어떤 언어 감수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새 정치'라는 말조차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그가 보여준 천박한 언어, 비열한 태도는 대선후보의 자격 이전에 공적 인물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그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사태를 계기로, 언어와 혐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후보의 일탈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는 곧 말의 무게이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국민을 상처 입힌 언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본투표 전에 즉각 사퇴하고, 정치권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공적 언어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

전북의 섬, 국토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한때 '낙후된 외딴 공간'으로 인식되던 섬이 지금, 전북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일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1천71억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유인도서 25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4대 섬 지원사업은 그 상징적 시도이자 실질적 면모 일신의 전환점이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기반시설을 놓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섬'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와 방파제, 물양장, 인도교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섬발전사업'은 이미 2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산 선유도 관광로와 고창 내죽도 방파제처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해 말까지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까지 완료되면 섬 간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오토크핑장, 어촌관광농원 등의 맞춤형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한다. 이는 그간 섬이 겪어온 '고립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전북도의 새로운 접근이자 주민의 자립 가능성을 넓히는 진정한 분권의 실현이다.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LPG시설 구축사업, 인구 10명 미만의 소규모 섬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작은섬 공동방직사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지 거주환경 개선을 넘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섬을 국가 영토의 실질적 일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특히 고창 외죽도나 군산 죽도 같은 작은 섬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전북도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시행된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과 연계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어청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등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한 섬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해양주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북도가 지역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 수호의 전초기지로서 섬의 전략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그곳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제 섬은 전북의 미래다. 해양관광, 수산자원, 재생에너지 등 섬이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전북도의 이번 섬 지원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더불어 주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긴 호흡의 협치가 필요하다.

섬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역사, 문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함께 깃들여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문화·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섬의 전략적 가치를 키워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섬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광장

“당신의 두 손이, 한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혹시 여기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는 분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외침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만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내가 해도 되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몇 초의 망설임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단지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심정지는 곧바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위급상황이며, 4분 안에 처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진행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은 실수보다 시도가 중요합니다. 가슴을 강하고 빠르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1 전원 켜기
전원 켜고 안내 음성에 따라 행동

2 패드 부착
땀을 닦고 상체에 그림처럼 패드를 부착

3 심장리듬 분석
주위에 "물리나세요" 외친 뒤 환자화 접촉 금지

4 심장충격(제세동)
환자와 접촉하지 말고 버튼 눌러 심장충격

5 심폐소생술
지체 없이 가슴압박과 호흡

6 반복
심전도 자동분석(2분 간격) 하는 사이 ⑤를 반복

게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AED를 가져오고, 다른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협력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병원 도착 후 생존율은 약2.5배가 높습니다. 다시 말

해, 시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소생률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친구,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배워 보세요. 단 몇 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시간을 선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 당신의 손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고선화 소방교



오늘의시

휠체어 댄스 / 한 강

눈물은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크게
나를 다 삼키진 않았죠
약풍도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가다가 온몸의 혈관으로
타들어오는 불면의 밤도

나를 다 먹어치울 순 없어요
보세요
나는 춤을 춘답니다
타오르는 휠체어 위에서
어깨를 흔들어요
오, 격렬히
어떤 미술도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등극해 문단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인)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재열전



청림리 석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석조, 불상

-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 소재지 -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감교리)

소중한 한 표... "투표 인증 용지 오려가세요"

투표 인증샷 행렬 이어져
'소중한 한 표 행사' 독려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29일과 30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투표를 인증하는 유권자들의 '인증샷' 행렬도 이어졌다.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인증 사진을 올리며 다른 SNS 이용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했다.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 사진은 어느새 지난 유행이 됐다. 이제는 별도의 투표 인증 용지를 준비해 도장을 찍고 인증하는 모습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엑스(X, 구 트위터)나 스레드 등의 SNS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좋아하는 스타 등의 사진을 이용한 투표인증 그림을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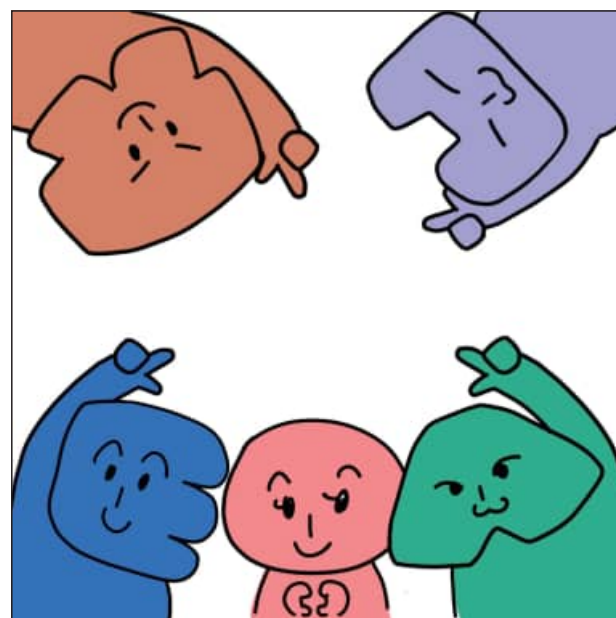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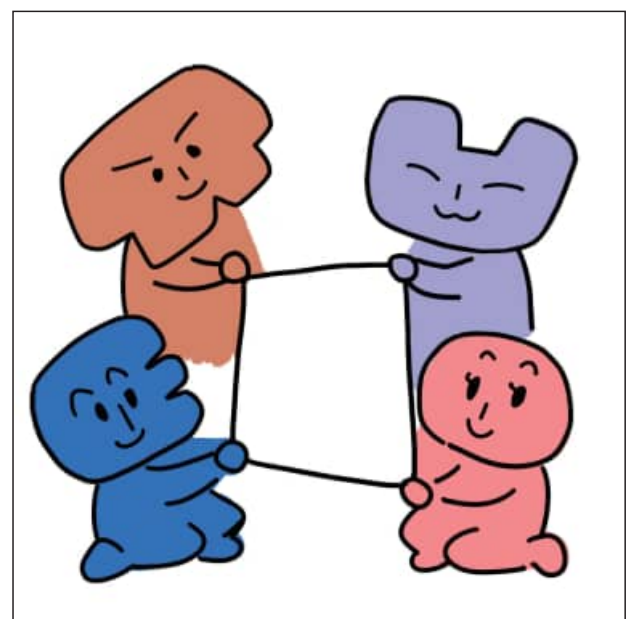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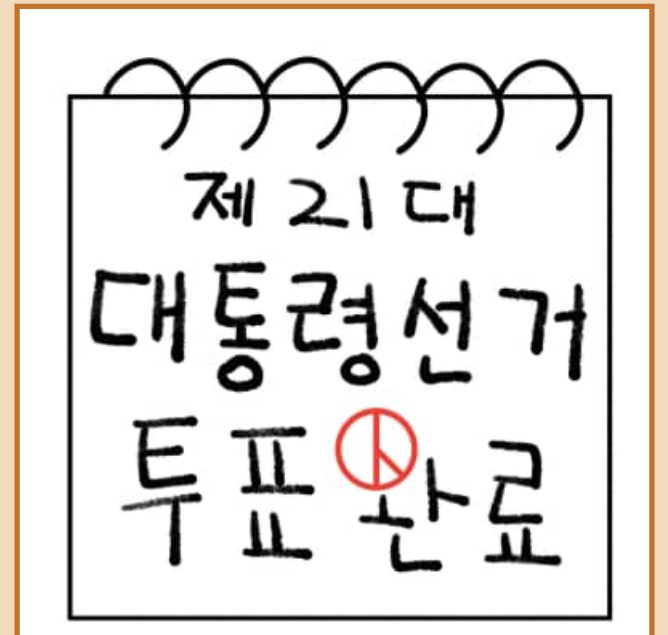
/편집=정혜민 기자

귀여운 캐릭터로 투표 인증해요!
6월 3일 본투표 때 함께해요

전북타임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타임스 캐릭터 이미지의 투표 인증 용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오려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에 투표 후, 인증 용지의 그림에 인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반드시 투표소 바깥에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투표소 외부에서 직접 가져간 투표 인증 용지로 사진 촬영은 가능하며 이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는 가능합니다.



- ▶캐릭터가 들고 있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 인증완료 하세요
- ▶캐릭터의 눈을 도장으로 완성해 주세요
- ▶한글 모음 'ㅇ'자가 비어 있는 곳에 도장을 찍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 ▶전북타임스 캐릭터들이 가리키는 한복판에 도장을 찍어 인증완료 하세요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타임스신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 · 자연보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모 기한**: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 **참가 대상**: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

▶ **작품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 **공모 부분**: 그림(만화 포함)

▶ **용지 규격**: 8절지 크기(B4 용지)

▶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 **접수처**: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5층
전북타임스 본사, 문의 (063)282-9601, 9604

▶ **입상자 발표**: 2025년 7월 11일(금)

▶ **입상자 시상**: 2025년 9월 13일(토)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의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의회의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3명)=국회의원상